



홍 현 자
(충북 진천군 보건소)

본 군 보건소는 북으로 경기, 서쪽으로 충남 경계에 접한 충북중앙에 위치한 인구 70,761명에 넓이는 4,112km²로 읍 1개 면 6개의 별로 크지 않은 군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진천군 보건소는 1957년 6월 모범 보건지구 덕산보건진료소로 발족하여 급일의 보건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당시 기구를 말씀드리자면 소장 1명, 간호원 1명, 위생지도원 1명, 서무 1명으로써 결핵관리, 방역사업, 예방접종, 모자보건, 보건교육을 해 왔으며 본 보건소의 대상주민은 27만여명으로서 주업은 농업이고 교육정도는 극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당시 보건진료소를 활용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교육수준이나 생활정도가 낮은 사람들만이었습니다. 시설적으로는 의료시설이라기 보다는 초가 공회당을 하나 빌어 조그만 의무실정도로 발족한 셈입니다. 무료진료라는 혜택때문에 매일 100여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해야 되나 검사기구, X-Ray등도 갖추지 못하고 결핵환자는 타곳에 가서 X-Ray를 촬영해 오도록 하였으니 맨손으로 보건사업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 당시 보건소에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어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산모만 생기면 으레 보행

으로 몇시간씩 걸어서 가야만 했고 그 당시에는 정기버스나 택시는 구경도 할 수 없었지요.

종합병원에서만 활동하던 제가 지금의 진천군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20년전의 일이었습니다. 10년이던 강산도 변한다는 때 강산이 두번이나 변할 20년이상을 이곳에서 많은 사람의 아픔을 보아왔습니다.

20년전 제가 처음 보건소에서 일을 시작할때는 1명뿐인 간호원으로써 저는 환자를 돌보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가족계획지도, 모자보건사업이다, 보건교육이다 하여 요즈음 새삼 거론되고 훈련되는 다목적 보건원으로서 20년이 어느 곁에 지나가는 지도 몰랐습니다. 진천군 보건소에서 일을 시작하고보니 의료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업전달의 문제보다는 전통사회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미신적 해석으로 병을 치료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귀중한 생명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수십년 뿌리박은 사고방식을 뜯어 놓기란 여간 험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건진료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초기의 일로서 어느 폐병환자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5세의 어린이가 병이나서 무당에게 푸닥거리를 하면 된다하여 매일같이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만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병은 차드가 없이 점점 심각하여져서 아이는 호흡이 곤란하여지고 열이 심하여 사경을 헤메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그 동네 사람 한 분이 저희 보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병을 숨기기로 하는 주민의 인식과 소수의 인원으로 본 마을을 담당하는 그 당시로서는 이와같이 문제있는 사람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알려주지 않았읍니다.

다행이 이런 정보를 알게 된 그 분과 저는 즉시 20리 길을 걸어서 그 동네에 도착하였읍니다

무당의 굿은 계속 되었고 회복을 바라는 아기 어머니의 표정은 게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무당을 돌려 보내고 어머니를 설득하여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직접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동네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무당을 돌려 보내고 진찰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를 가까이 가서보니 심한 호흡곤란과 고열이 심했습니다. 가슴과 배근육을 다 사용해야만 호흡을 하는 정도였고 오랜동안의 병으로 탈진, 탈수상태로서 응급처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그 아이의 병은 폐렴이 아니라 나무장목과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몇달전에 부엌문을 새로 달은 것과 애기어머니의 외출이 귀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사 한대 놓지 못하게 펄펄 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과학적인 지식, 경험, 선례등을 가지고 설득하려 했으나 워낙 골수에 박한 무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끝에 저는 반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태연하게 아기 어머니에게

부엌문을 새로 달은 것과 애기어머니의 외출이 귀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사 한대 놓지 못하게 펄펄 뛰는 것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럼 할 수 없군요. 폐염주사를 놓을 것이 아니라 나무 장목을 잡는 주사를 놓아야겠군요.” 그런 말을 하고 어린아이를 붙잡아 주사를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젠 어리까지 농락한다고 덤벼들 것을 기대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무지는 무지로 다스려야 한다고나 할까요. 아기 어머니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그런 주사가 있으면 빨리 놔 달라고 반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사가 있다면 무당은 다음에 부르고 먼저 치료부터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아기에게 주사를 하였습니다. 숨가쁜 것을 덜기 위하여 물주전자 끓이는 것, 그동안의 고열이나 호흡곤란으로 소모

된 에너지, 수분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아기가 몸이 건강해야 귀신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끓인 보리차와 국, 국물, 죽등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후 5일을 그 아기집에 다니며 주사를 계속 하면서 아기의 회복을 관찰하였습니다. 아기에 게 하루에 3번씩 5일을 계속 주사를 놓고나니 5일후에는 밤낮을 무당에게 지달렸던 아기가 포근히 잠자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뜻이 있는 곳에 같이 있음을 실로 실감하였습니다. 아기엄마는 열심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 비닐을 이용하여 끓는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쓰이게 했고 아기의 병은 곧 완치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야 아기 엄마에게 당신의 아기는 나무 장목이니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폐렴이었으며 그간의 주사치료와 증기쓰임으로 완치되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애기 엄마는 감격하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애기를 찾아 주었습니다.”하고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경험을 통하여 지식수준이 다르고 사고방법이 다르며 생활구조가 다른 사람을 대할때 얼마나 다양한 접근 방법을 그 상

황에 맞추어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사업의 5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보건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후 얼마간은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이 귀신잡는 주사를 놓아 달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주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좋은 약을 쓰면 병이야 낫겠지만 수천년을 골수에 박혀 내려온 무지를 퇴치한다는 것은 한 두 마디의 말과 한 두번의 치료의 성과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초창기서부터 이러한 가난과 무지로 인한 질병의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이마을 저마을을 순회

특집 : 새마을 건강사업

하면서 꾸준한 보건교육사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지금부터 4년전 보건소에서 25리쯤 떨어진 가난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1년에 쌀밥 세번만 먹으면 더가 좋다는 가난한 동네에 장티프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100여호가 여기 저기에 흩어져 사는 동네에 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몇 명은 이미 증태에 빠졌다는 급보가 보건소에 날아든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 5~6명이 급히 동네에 도착하여 물어 본 즉 아무도 정확히 답변하는 사람이 없으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극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식수는 공동 우물을 사용하고 개인 우물이나 펌프가 설치된 집은 한두 가구에 지나지 않아 수인성 전염병만 생기면 만연 일로의 위기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가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원인과 질병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간호원으로서 여자라는 조건 때문에 쉽게 마을을 집집마다 안방에까지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의 건강상태를 살펴며 숨기려는 환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연담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였습니다.

일하러 나간 집의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아궁이에 불을 넣어 주기도 하고 어느정도 친숙해진 다음, 병의 확대 연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처음에 동네 한 집에서 환자 한사람이 발생하였는데 그 집이 마침 부갓집이라 술과 떡을 대접하며 무당이 푸닥거리를 거창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잔치에 참여하였고 병은 일시에 온 동네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악질 전염병인 것을 알고도 쉬쉬하며 숨기다가 200여명이나 잃게 되자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안면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전염병을 숨기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장티프스를 퇴치할까를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

하며 제공 지도하는 저를 본 여러 사람들은 비교적 협조적으로 변하였고 그중 두서넛 중환자는 자진해서 후송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찬물로 씻고 나면 옷입는 사이에 또 땀이 나는 무더운 삼복 더위에 전염병환자가 누워 있는 킁킁한 좁은 방을 땀에 젖은 옷을 입고 드나들때면 너무나 피로왔지만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제가 주는 약을 받아 먹는 환자를 보노라면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 지루하고 무더운 여름은 가고 한달 반을 끌어오던 장티프스가 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출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는 이 마을의 환경정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집집마다 우물을 설치토록하고 부엌의 위생관리등 보건 생활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 후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보건자 색출에도 다른 동네보다 제일 잘 협조하여 주민의 80%가 호응하였고, 그 동네사람들은 보건소에 드나드는 것을 꽤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전강에의 무지함이 일다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현재 가족계획사업도 모자보건사업도 우수마을에 속합니다.

제가 보건소에 처음 들어가서 일할 때에는 그곳 주민 모두가 복숨을 걸고 출산해야 하였고 그 비위생적인 처리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20여년전 일입니다. 보건소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산모가 있다는 전갈을 받고 운동화 차림에 조산 셋트를 들고 어둑어둑한 눈무령길을 바삐 걸어서 그 집에 들어가보니 상황이 놀라왔습니다. 산모는 진통에 지친 나머지 신을 소리도 가날뜨게 뇌이고 거의 질신 상태였습니다. 도착한 시각이 오후 8시경이었으니 새벽부터 16시간을 진통해 온 산모는 거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은 오막살이 초가 두칸에 장판도 없는 흙바닥에다 질단을 하나 깔고 신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분만한다는 것은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비위생적인 환경이지요.

그때부터 저는 추위환경을 정돈하고 가지고 간

비닐을 깔은 후 분만을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몇 분후 옥동자를 분만하였으나 아기를 싸놓을 천하나 없고 산모의 기저귀도 한 장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끝에 조산 셋트 안에 든 수건 봉대 탈지면등을 모두 꺼내, 타올과 제가 입고 있던 옷으로 애기를 싸고 봉대에다 탈지면을 싸서 산모의 기저귀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일단 처리가 끝나고 보니 방이 흠바닥이라 파상풍이 걱정되었습니다. 산모에게 몇번이고 주의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만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습니니다.

가족에게 산모나 애기를 맡길 수 만은 없어서 나는 다시 보건소에 와서 못 쓰는 종이를 다 가지고 그 집으로 달려가서 종이를 방바닥에 가능한 대로 두겹게 깔고 흠이 애기에게 묻지 않게 종이요를 만들었습니다. 보살핀 결과 산모, 아기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남편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느냐며 밖으로 나가 돈을 꾸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도로 주며 미역과 쌀을 사서 산모나 잘 보살피라고 하니 그 사람은 내힘으로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내가 선생님 덕에가서 일이나 해 주겠다고 울먹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세수하고 탁 방으로 들어오는 중 문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보건소에서 약 2km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 산모가 애가를 낳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 빨리가서 들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출산준비를 허가지고 그 집에 당도

하니 대문 밖에서 있던 산모의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며 하는 말이 조금전에 애기를 순산했다며 순산을 못해 선생님을 불렀는데 애기를 낳았으니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할머니, 애

기는 순산했지만 산후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봐드리지요.”하니 할머니말인 즉 물을 건너왔으니 부정이 타서 안된다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만이 잘 안되어 급하니 부르러 보내 놓고는 그동안 아기를 낳고 위기가 넘어가니 새삼 지켜야 할 것이 생각나 강을 건너왔으니 못 본다는 모순되는 말에 무어라 설득을 해야할 지 아연했습니다. 몇번이고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다고 30여분을 간청하다가 그러던 지금은 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대로 돌아가나 언제고 필요하면 오시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저 자신에 속상해하며 그 같은 미신으로 사는 방법에 젖어버린 우리나라의 관습이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되었을까 그 산모집에서 와달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다시 갔을 때는 산모는 빈사 상태였습니다. 사연인즉 태반이 나오지 못하여 옆집 할머니를 불러 바가지로 배를 문질렀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문치른 관계로 자궁 안에서 출혈이 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반이 자연히 나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침에 갔을 때 집안에 들어가게만 했던 들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을 모두가 무지에서 오는 배신이 이러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즉시 5% 포도당을 쏙고 가족에게 위독함을 알렸습니다. 회복된다는 장담은 못 하지만 급히 청주 산부인과에 가서 수혈하여 최신을 다해 보자고 일렸습니다. 가족들도 잘 수긍하여 곧바로 장터로 나와 추럭



한대를 구해타고 산모에게 포도당 주사를 놓은 채 27km나 되는 청주로 갔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도착하여 즉시 수혈을 시작하고 잔류해 있는 태반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나니 산모도 차차 안색이 회복되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2,3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 남아 있는 신생아를 보살피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우유를 사다 먹이고, 특우도 시키고, 가족을 대신하여 아기를 보살폈습니다. 저는 산모가 치료나 또는 생명을 건졌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 아니 나가서는 이 땅에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켜야 할 미신이 많고 급해야 할 것이 많으나 간호원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완전히 파악하고 그들의 신임을 얻는다면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사람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뒤통기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주민의 건강기록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보건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강건너와서 산포를 볼 수 없었다면 마을부터라도 보건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 10회씩 마을에 나가서 사람이 많이 모인 우물이나 어디나 함께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수롭잖다는 듯이 저를 슬슬 피하려는 자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고 그 마을에 가정방문만 가던 시어머니, 먹느리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텃밭 자르는 과정에서 부터 산모의 위생적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때로는 직접 그림, 슬라이드등 교육자료 사용을 시도했습니다. 녹슨 가위와 녹안손 가위, 깨끗한 천과 떨어진 절레 조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말로 가위를 소독해라 산모에게 굳은 깨끗한 기저귀를 해주어라 한들, 우선 없으니 누가 하겠습니까? 내 집에 있는 물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새 가위가 있으면 더욱 좋

지만 녹슨 가위가 있는 집이 더 많았습니다. 불이 빨간 화롯불을 하나 갖다놓고 가위를 거꾸로 꽂고 한참후 빨강계 달은 뒤 꺼내서 손이 안닿는 선반 같은 곳에 손잡이만 선반에 닿게 하고 불에 달군 곳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 두었다가 태를 자르면 애기가 생후 1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는 파상풍을 막을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깨끗한 형질을 가지고하면 더욱 좋지만 없는 분은 떨어진 형질이라도 깨끗이 빨아서 솥 안에다 뺨찌듯 쳐서 쓰면 나쁜 균이 죽기 때문에 산후가 깨끗하고 몸이 빨리 회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신부가 있는 집은 가정방문을 해가며 개별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가정에서 흔히 짚을 깔고 분탄을 하는 데 그것이 불결하고 아기에게 상처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출산신고를 빨리 하게 하는 것도 교육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출생신고가 늦어진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결하거나 녹슨은 가위, 새 금파리, 이빨등으로 제대를 잘랐으니 신생아 사망율은 높았을 것이고 자연적으로 1개월(소위 삼칠일)이 지나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임신부가 음식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아기분만을 안전한 방법으로 소독적으로 하면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마자 겪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은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고 잘 들곤 했습니다. 아무개 엄마도 그 때 죽을뻔 했는데 진료소 간호원이 와서 청주로 데려갔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며 그들은 저를 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다른 마을도 물론 위생관념이나 여러가지 면으로 변모하였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오래이 임신후부터는 계속해서 저와 산전, 산후에 대한 토의를 하고 산기만 있으면 보건소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또 하나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당시 가장 등한시 했던 것이 변소, 천연 병을 전염시키는 주모자인 변소는 누구 하나 생

자도 못한 일입니다. 그 때부터 변소 개량까지는 힘들지만 있는 변소에다 나무관으로 뚜껑이라도 해서 파리라도 막으면 우선은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 끝에 널빤지 중앙에 손잡이를 달아 변소 뚜껑 해 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 역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야 전 마을에 실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언제나 가져온 자신들의 생활습관, 사고방식을 고치라하면 여태까지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이 지내왔을 때 새삼스레 바꾸어야 할 이유를 주민에게 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잔호원은 질병건강의 관리

먼 훗날 제가 보건소를 떠난 후에도 그들은 멀리서 저를 지켜 줄 것이고 저는 그들에게 축복을 빌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을의 일상생활의 조정자 또는 상담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제가 마음깊이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루는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 밖에서 갑자기 고함소리가 나서 보니 걸인 비슷하게 차린 사람이 치료실에 들어오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달래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의 사연인즉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항상 술을 먹는다는 것과 부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친척집에 맡기고 자기는 이런 걸인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어 몸이 쇠약해지고 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았고 어디가 불편한지도 알았으나 앞으로 잘 도와드리겠다고 한 후 우선 당장 진정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약을 주면서 술이 깨거든 다시 오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 환자는 후일 다시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온바로 사는 길과 술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점을 한가지씩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설명해 주고 계속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찰과 각종 검사를 한 결과 간경화증 환자였습니다. 가정적으로 안정이 안되고 건강마저 나빠진 이 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에 전념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했습니다. 언제나 혼자이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다고 느끼던 그분은 처음으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약 복용과 정신적 안정으로 2개월후에는 완전하게 회복은 안되었어도 복수도 차츰 줄고 유종도 없어지고 희망의 빛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환자를 자리에 앉히고 며칠간은 자연스러운 대화로써 나를 따르도록 이끌어 그 환자가 어느정도 나를 믿고 신임하게 되었을 때 저는 신병치료가 아닌 인생 강의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간은 별 흥미 없다는 듯이 들으려고

도 않던 이 환자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여 드디어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온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제 노력의 댓가는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저를 찾아와 친구인양 다정하게 활짝 웃으며 "홍 선생님"하고 부를 때는 웃음과 달리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내 정성을 저버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또 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뒤섞인 것임을 알고 저도 또한 함께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반년 후에는 몸도 회복되고 조그만 산을 하나언어 개간을 하여 농사를 지어 브렸다고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걸인을 치료해준 후부터 저는 걸인들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날 밖을 나가니 어디서 "홍 선생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서 보니 걸인들이 "우리 고마운 분" 멀리서 보니 선생님 같아서 쫓아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다니며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년간 일하는 동안 진천군민은 물론이고 걸인에서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걸인들은 아프든 아프지 않은 장날이면 평균 3명정도 이상

씩 찾아 오기도 합니다. 걸인들끼리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걸인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제가 보건소를 떠난 후에도 그들은 멀리서 저를 지켜 줄 것이고 저는 그들에게 축복을 빌 것입니다. 지금도 보건소 직원들이 “거지 대장”이라 부르는 제 별명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영광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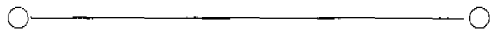
매일 시달리는 격무 그 당시에는 보건소에는 간호원이라고는 본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자치료, 증명발급, 결핵 환자 주사 처치 등으로 낮에는 서류정리는 생각조차 못하고 서류 보따리를 집으로 가져와 피곤한 몸으로 풀아가며 지낸 오랜 세월의 고생을 지금 생각하면 쯤만 같습니다: 지금은 1977년 6월부터 대통령각하의 특별배려로 의료사회사업이 실시되어 진료간호원 확보, 의료시설 개선 등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모자보건요원, 진료간호원, 보건요원의 대우 관계로 아직

울이 높아 사업 추진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계에 투신한지 26년이 되었고 언젠가 주민과 직접 대하여 수 많은 아픈 사람들의 비명을 쓰다듬어 그들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것을 큰 보람으로 알고 살아 왔습니다.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일에는 면허를 받았지만 사람을 다스리는 일에는 면허도 없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친구로서 더 깊이 사귀며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는 성급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불만도 했고 인간으로서 소유하고픈 많은 물질적 유혹 때문에 그만 두고픈 마음도 수시로 있었습니다.

뛰는 것에 비해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도 조금이라는 것에 적잖을 포기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가지에 정진해 온 성과가 진천군 주민의 입에서 전해지는 것이 기쁨이라 생각하며 남은 일생을 봉사하려고 합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9페이지에서>

4) 환자와 collection bottle을 연결한 후 vacuum regulator에 달린 valve를 시계 마늘 반대방향으로 돌려 bubble이 계속 나올때까지 튼다. drainage가 많으면 같은 정도로 valve를 틀어도 bubbling은 적게된다. 따라서 환자에게 연결한 후 환자의 cavity 내에서 drain되는 것을 보

고 needle valve를 틀도록 한다.

4. 사용후

- 1) vacuum regulator와 진·병은 소독이 필요하다.
- 2) collection bottle은 뚜껑에 있는 얇은 고무 밸브 valve를 떼고 autoclave한다.